

중국 최초의 정사(正史):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

김영진(국민대 국제학부)

2016.4.11

강의 개요

- 1. 시대적 배경
- 2. 개인적 배경
- 3. 『사기』의 구성과 체계
- 4. 역사가 사마천의 소명의식
- 5. 경제사상 “화식열전”
- 6. 대일통大一統(중국 중심의 통합적 질서)
- 7. 역사기술상의 영향
- 8. 평가 및 참고문헌

1. 시대적 배경

5帝

하夏: 기원전 2100-1600

(단군檀君)(2333)

상商(은殷): 1600-1046

주周(서주西周) 1046-770

(기자箕子)10세기

春秋戰國: 770-221

조선朝鮮(?)

秦: 221-(210)-207

漢: **전한** 기원전 206-기원후 9

위만조선衛滿朝鮮(기원전 194

후한 기원후 24-220

準王 제거후)

삼국시대: 위, 촉, 오

한사군漢四郡(기원전108)

- 전한의 상황(기원전 206-)
- 고조 유방劉邦
- 여태후呂太后
- 文帝와 景帝: 文景之治
- 武帝(기원전 141-87 재위): 휴식-> 팽창정책/최대영토
- 사마천司馬遷(기원전 145-90?)

한 제국의 영향권



무제시기 한의 영토가 된 곳:

홍노, 남월, 동월, 서역, 조선, 서남이

秦: 340만 Km²
西漢: 568만 Km²

(中國歷史地圖集)

2. 개인적 배경

- 선조/周 왕실의 문서기록 담당
- 진秦: 혜왕惠王 때 촉蜀을 정벌한 사마착司馬錯, 소왕昭王 때 장군 백기白起를 따라 공을 세운 사마근司馬靳, 철관鐵官을 담당했던 사마창司馬昌.
- 한漢: 증조부 사마무택司馬無澤: 수도 장안의 4개 시장市場 가운데 하나의 책임자.
- 조부 사마희司馬喜: 五大夫 작위를 매입.
- 부친 사마담司馬談: 태사령太史令, 무제 때 천문과 문서의 기록 담당.

(계속) 개인적 배경

- 龍門(지금의 陝西성 韓成) 출생
- 고향에서 10세부터 고문(상서, 춘추좌전, 국어 등)을 암송. (나중에 부친이 있던 수도로 이주)
- 19세: 수도 장안에서 출발하여 장강(양자강), 회하 유역 및 중원 지역 유람, 풍속고찰, 전설 수집.
- 이어 낭중郎中으로서 파, 촉 이남에 사절로 나갔고, 서남이 지역의 소수민족들을 공략하여 보고함.
- 25세: 감군監軍으로서 서남이 지역에 군현의 설치에 참여.
- 41세: 부친 사마담(3년전 사망)의 태사령(직급, 6백석: 현령과 동급) 승계.
- -55세(기원전 91년): 태사령(궁형후 중서령中書令)으로서 『사기』의 집필.
- 90년경 사망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자료 없음: 선종? 죽음(태자 劉據의 무고사건)?





韩城

사마천 祠墓(섬서성 한성시)

10



『사기』 집필 과정

11

- 무제는 사마천의 원고에서 자신을 폄하한 것에 불만, 삭제하게 하기도.
- 48세/宮刑: 장군李陵이 흉노 출정에서 포로로 잡힌 것, 대신들은 모두 항복했다고 멸족을 주장, 사마천은 그를 변호하고 그의 공적을 높게 평가함.(소규모 병력으로 적에게 큰 피해를 줌으로써 천하에 그 공을 드러내야 한다고.) 이광리李廣利(이부인의 오빠)의 공적 및 자신의 인사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간주. 투옥되어 사형에 처해졌으나 범(50만 속전 혹은 궁형)에 의해 궁형으로 대신.

3. 『사기』의 구성과 체계

- 본기本紀 12권,
- 연표年表 10권,
- 서書 8권,
- 세가世家 30권,
- 열전列傳 70권

- 모두 130권, 글자 수는 52만 6500여자.

본기(本紀): 정통왕조와 제왕 (편년)

- 1. 오제 본기(五帝本紀: 황제黃帝-전욱顓頊-고궤-요堯-순舜)
- 2. 하 본기(夏本紀)
- 3. 은 본기(殷本紀)
- 4. 주 본기(周本紀)
- 5. 진 본기(秦本紀)
- 6. 진시황 본기(秦始皇本紀)
- 7. 항우 본기(項羽本紀)
- 8. 고조 본기(高祖本紀)
- 9. 여태후 본기(呂太后本紀)
- 10. 효문 본기(孝文本紀)
- 11. 효경 본기(孝景本紀)
- 12. 효무 본기(孝武本紀)

표表

14

- 1 삼대 세표(三代世表)
- 2 십이 제후 연표(十二諸侯年表)
- 3 육국 연표(六國年表)
- 4 진초지제 월표(秦楚之際月表)
- 5 한흥 이래 제후왕 연표(漢興以來諸侯王年表)
- 6 고조 공신후자 연표(高祖功臣侯者年表)
- 7 혜경 간 후자 연표(惠景閒侯者年表)
- 8 건원 이래 후자 연표(建元以來侯者年表)
- 9 건원 이래 왕자후자 연표(建元以來王子侯者年表)
- 10 한흥 이래 장상명신 연표(漢興以來將相名臣年表)

예) 십이 제후 연표(十二諸侯年表, 기원전 841-447년)

公元前	年	周	魯	齊	晉	秦	楚	宋	衛	陳	蔡	曹	鄭	燕	吳
841	庚申	共和元年 厲王子居召公宮， 是為宣王。王少，大臣共和行政。	真公湫十五年，一云十四年	武公壽十年	靖侯宜臼十八年	秦仲四年	熊勇七年	釐公十八年	釐侯十四年	幽公寧十四年	武侯二十三年	夷伯二十四年		惠侯二十四年	
840	二		十六	十一	晉釐侯司徒元年	五	八	十九	十五	十五	二十四	二十五		二十五	
839	三		十七	十二	二	六	九	二十	十六	十六	二十五	二十六		二十六	
838	四		十八	十三	三	七	十	二十一	十七	十七	二十六	二十七		二十七	
837	甲子	五	十九	十四	四	八	楚熊嚴元年	二十二	十八	十八	蔡夷侯元年	二十八		二十八	
836	六		二十	十五	五	九	二	二十三	十九	十九	二	二十九		二十九	
835	七		二十一	十六	六	十	三	二十四	二十	二十	三	三十		三十	
834	八		二十二	十七	七	十一	四	二十五	二十一	二十一	四	曹幽伯彊		三十一	

서書

16

- 예악, 법률, 달력, 천문, 제사, 수리사업, 경제정책 등 개별적인 주제를 차례로 다룬다. 이를테면 「평준서」에서 평준은 물가를 일정한 수준으로 안정시키는 정책을 가리킨다.
- 1 예서(禮書)
2 악서(樂書)
3 율서(律書)
4 역서(曆書)
5 천관서(天官書)
6 봉선서(封禪書)
7 하거서(河渠書)
8 평준서(平準書)

세가世家

17

- 춘추전국시기의 제후국들 16개
- 한 시기의 권문귀족 5개
- 공자, 진섭陳涉(진승勝), 외척세가 등 3인
- 한의 황제에 의해 분봉된 제후왕들 12 가문 등

열전列傳

18

- 유명한 평민들(정치가, 사상가, 장군, 학자들)
- 각 분야의 두각을 나타낸 인물들(자객, 유협, 흑리, 권력주변의 아첨꾼, 변론가, 점쟁이, 유림, 재력가 등)
- 주변의 민족들(흉노, 남월, 동월, 조선, 서남이, 대원 등)에 대한 최초의 기록, 물론 한 중심, 중화주의적 입장.

4. 역사가 사마천의 소명의식

1) 『춘추』 필법: 공자의 영향

- 예 1) “천왕天王 하양河陽에 순수巡狩하셨다.” (진핍의 문공이 초를 격파하고 패권을 잡고, 하양에서 제후들과 회맹하면서 周의 양왕襄王을 강제로 참여하게 한 사실)
- 예 2) “진핍의 순림보荀林父가 초자楚子와 ...싸워서 졌다.”(진의 장군은 이름을 그대로, 초는 ‘자’의 작위로 표현하여 초를 지지함)

2)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서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 진실을 전하는 것.

백이열전伯夷列傳(열전 1권)에서 사마천은 “어진 덕을 쌓고 품행이 고결했던” 백이와 숙제는 수양산에서 젊어서 굶어죽고, “죄없는 사람을 죽이고 간을 회쳐 먹은 포악무도했던” 도척盜跖은 천수를 다 하고 살았다. **그런 사례는 적지 않다. 과연 천도天道가 없는 것인가?고 문제제기.**

일단 공자에게서 답을 구해본다. 공자는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천명에 순응하고, 도에 힘쓰겠다고. 동시에 사후의 칭송 받지 못함을 수치로 여긴다고만.

사마천: 백이와 숙제 그리고 (가난하게 살다 요절했지만 공자가 가장 아꼈던 제자) 顏淵은 공자의 칭송을 통해서 그 덕행이 세상에 빛나게 전해짐.

☞ 인간이 세상의 악에 대응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밝혀 후세에 전함으로써 악인을 징계하고, 선인을 드러냄.

5. 경제사상 “화식열전”

- 욕구의 절제에 바탕을 둔 자급자족의 소규모 공동체를 주장하는 노자老子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된다.
- “창고가 차야 예절을 알고, 의식이 족해야 영욕을 안다.”는 管仲의 주장을 인용.
- 정치도 그러한 백성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 인간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물자들은 어디에서나 생산되는 것은 아니며, 자연적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상업은 불가피. (통상적 중농사상에서 벗어남)

- 경제적 분업: “농사를 지어서 먹고, 자연에서 물자를 채취하고, 수공으로 물건을 만들어, 상업으로 유통시킨다. 이러한 일이 어찌 정책, 모집, 정기적 회합에 의해서 이루어지겠는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능력을 다하는 것뿐이다....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 (사회적으로는) “농업으로 부를 얻는 것이 최상책이고 상업에 의한 것이 다음이다.”
-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가난으로부터 부를 얻는 데에는 농업은 공업만 못하고, 공업은 상업만 못하다.”
- “부를 얻는 데에는 일정한 직업이 없고, 재물에는 일정한 주인이 없다.”
- “... 필부의 몸으로 정치를 해치지 않고, 백성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때에 따라 팔고 사서 재산을 늘려 부유하게 된 사람들도 있으니, 지식인들도 이들에게 갈채를 보냈다. 그래서 「화식열전」을 지었다.” (제철, 상업, 물자의 매점매석, 고리대금업, 도굴 · 도박 · 행상 · 물장수 · 위포胃脯장수 등 부정적인 방식도 인정)

6. 대일통大一統(중국 중심의 통합적 질서)

- 1. 역사기술의 중심에 「본기」를 둬으로써 역대 제왕들의 계보를 마련. 시조인 황제로부터 한무제에 이르기까지 약 3천년의 역사가 12개의 「본기」로 정리됨. 특정 제왕과 왕조에 대해서 역사적 정통성이 부여.
- 2. 황제黃帝 현원씨軒轅氏가 공동의 조상으로 설정됨. (cf: 3황)

- “염황의 자손”
- 炎黃二帝塑像
- (하남성 정주시,
- 높이 106미터,
- 2007년 완성)



- 3. 중원국가들의 제왕들 및 시조들 사이 혈연적 관계
- 5제들(황제黃帝에 이어 2대 전욱顓頊은 그의 손자, 3대 제곡帝嚳은 황제의 장남 현효玄囂의 손자, 즉 황제의 증손, 4대 요는 제곡의 차남, 즉 황제의 4대손, 그리고 요가 제위를 선양한 것으로 알려진 순은 전욱의 6대손)
- 하의 시조인 우禹는 전욱의 손자이자 황제의 4대손
- 상의 시조 계契는 제곡의 둘째부인 간적簡狄의 소생
- 주의 시조 후직后稷은 제곡의 첫째부인 강원姜原의 소생.
- 춘추시기의 초 · 오 · 월 · 진의 시조들도 중원국가와 연결(진과 초는 전욱, 월은 하왕조의 6대 왕인 소강少康의 서자, 오는 주왕의 후예)

7. 역사기술상의 영향/紀傳體

- 후대의 역사기술: 24사
- 고려와 조선: 『삼국사기』 나 『고려사』
- Cf: 『일본서기』 (8세기)는 천황을 기준으로 『사기』의 본기와 같이 편년체,
- 월남의 『대월사기(大越史記)』 (13세기 말), 『대월사기전서大越史記全書』 (17세기 증보) 초기에는 왕, 후기에는 황제로 칭해지는 통치자 중심의 편년체

『삼국사기』 (1145년(인종 23)경)

27

- 본기(本紀)
- 권1—권12: 신라본기, 권13-권22: 고구려본기, 권23-권28: 백제본기
- 연표(年表)권29—권31
- 잡지(雜志)권32—권40: 제사(祭祀), 악(樂), 복색(服色), 거기(車騎), 기용(器用), 옥사(屋舍), 지리(地理), 직관(職官)
- 열전(列傳) 권41-권50(김유신 등 50명)
- (발문)

『고려사』 (1449(세종 31)~1451(문종 원년))

- 세가(世家) 권1-권46
- 지(志) 권47-권85(천문, 역, 오행, 지리, 예, 악, 여복, 선거, 백관, 식화, 병, 형법)
- 연표(年表) 권86-권87
- 열전(列傳) 권88-권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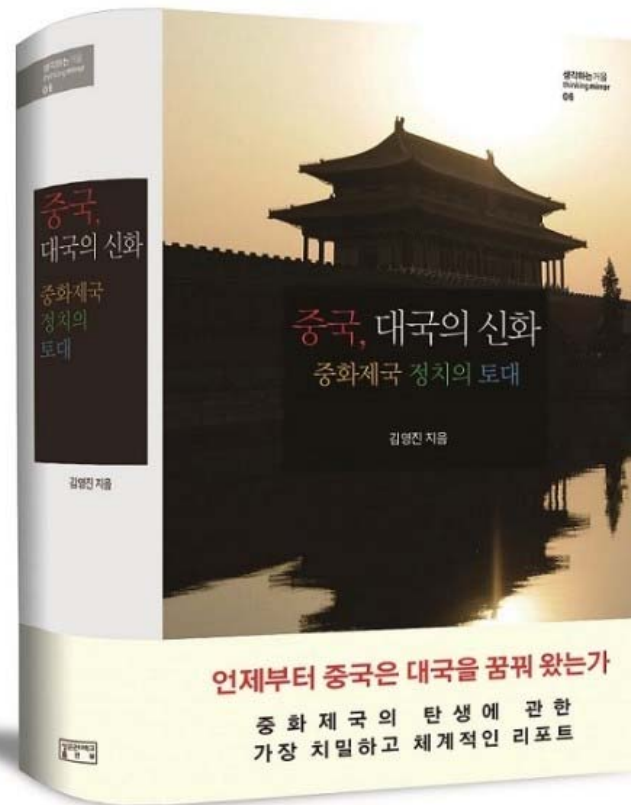
8. 평가

- 『한서漢書』의 편자 반고班固
- “유향劉向과 양웅楊雄 그리고 널리 여러 책들은 모두 칭찬하기를, 사마천은 훌륭한 사관의 재능을 가졌고, 상황을 잘 익혀 사리의 순서를 잡았고, 분명하게 말하되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고, 질박하되 속되지 않았으며, 그 문장은 곧고 일은 올바랐고, 근거없이 미화하지 않았고, 악을 감추지 않았으니, 그리하여 사실대로 기록했다고 말하는 것이다.”(『한서漢書』 「사마천전」)

참고문헌

- (사기 원전 번역서)
- 박일봉 편역, 『사기열전』 I/II, 육문사, 1994.
- 정범진 외, 『사기본기』, 『열전』, 『사기세가』 상/하, 『사기표서』, 『사기』, 까치, 1994.
- (해설서)
- 미야지키 이치사다 지음, 이경덕 옮김, 『자유인 사마천과 사기의 세계』, 다른세상, 2004.
- 김영수, 『역사의 등불 사마천, 피로 쓴 사기』, 창해, 2006

김영진, 『중국, 대국의 신화: 중화제국 정치의 토대』 (2015)



■ 감사합니다